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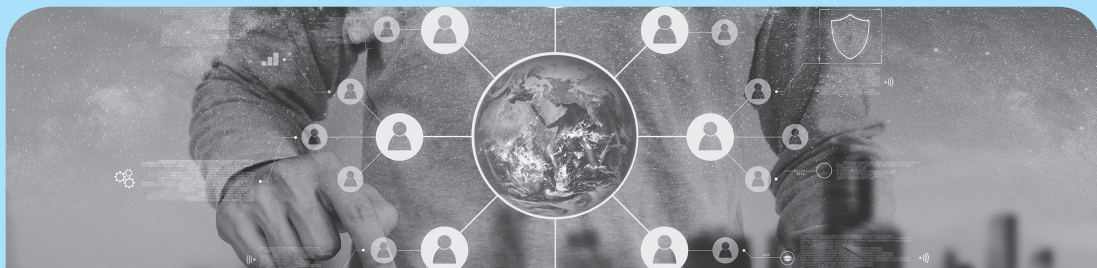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업환경변화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속가능경영전략

Session 5. 재무, 창업

좌장: 김청열 교수(동명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Junghwa Suh(Kyungpook University)* Jungwoo Suh(Korean Institute of Tax Science) Youngmook Lee(Lee&Ko)	Study on Accounting Audit System in Vietnam – Focusing on measures taken by Korean companies –	김진태 (중앙대)
김동운(동의대)*	롯데그룹 신동빈 일가의 소유-경영지배	박준우 (청주대)
류인철(한국내부통제평가원)*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	박형근 (명지전문대)
김형규(청운대)*	뷰티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	박성용 (웅지세무대)
강철승(한국수산정책포럼)*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승우 (대전대)

* 해당 논문의 발표자



베트남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서정화*·서정우**·이영묵***

국문 요약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부터 수교 관계를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정치, 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8년 5월 20일 누적 기준 6,883건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약 4,2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우리와 같은 회계감사체계가 완벽하지 않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획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은 회계법(Luật Kế toán 2015) 제2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은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격한 회계감사제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회계감사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내 회계법인과 회계감사를 진행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형 회계법인과 회계감사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의 마련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품질 관리감리의 결과 및 개선권고 사항을 공식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감사비용 절감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재정부(Bộ Tài chính(Việt Nam))가 공표한 고객사의 자산규모, 업종, 투입되는 감사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감사 수수료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준수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제1저자, jhs5351@daum.net)

** 한국세무연구원 연구위원(교신저자)

*** 광장 법무법인 미국공인회계사(공동저자)

핵심 주제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사회 연계방안

롯데그룹 신동빈 일가의 소유·경영지배

김동운*

국문 요약

본 논문은 롯데그룹의 소유·경영구조를 고찰한다. 특히 소유 및 경영에 오너 일가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참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롯데그룹은 2020년 5월 현재 자산총액 기준 5위의 재벌이다. 계열회사는 86개, 자산총액은 121.5조 원 그리고 매출액은 65.2조 원이다. 또 ‘2세 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2011년 2세대 인 차남 신동빈이 창업주인 아버지 신격호로부터 그룹회장직을 계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일인 신분 또한 물려받음으로써 그룹의 공식 오너로 자리매김하였다.

2017년 시작된 지주회사체제는 그룹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2017년 10월 롯데제과가 ‘롯데지주’로 전환하고 3개 계열회사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5개 계열회사의 투자사업부문 및 1개 계열회사를 흡수하였다.

그 결과, 2018년 5월 현재 107개 계열회사 중 45%인 48개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년이 지난 2020년 5월 현재에는 이 비율이 80%로 꺾충 뛰어 86개 계열회사 중 69개가 지주회사체제로 재편되었다. [지주회사 롯데지주 → 자회사 24개 → 손자회사 43개 → 증손회사 1개 + 기타 17개]의 구조이다. 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그룹회장 겸 동일인인 신동빈이며, 보유 지분은 13.0%이다. 신동빈의 지분은 ‘지주회사체제 직전인 2016년 8.78% → 지주회사체제 첫 해인 2017년 10.5% → 2018년 11.7% → 2020년 13.0%’ 등으로 증가하였다. 롯데제과/롯데지주의 대표이사직은 2004년부터 보유해 오고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이다. 가장 큰 문제는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의 지분(2020년 13.0%)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기타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 지분을 합해도 우호 지분(20.7%)은 20% 남짓이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54.4%)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32.5%)과 일본 소재 롯데 관련 회사 보유 지분(21.9%)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신동빈은 롯데지주 외에 많은 계열회사들(2020년 13개)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신동빈의 롯데지주 지분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 롯

*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yoojin77@naver.com)

테지주의 계열회사 수가 어느 정도로 더 증가할지, 그리고 그 결과 보다 성숙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주회사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 주제어: 롯데그룹, 소유·경영구조, 신동빈, 지주회사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비교 연구*

류인철**

국문 요약

최근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부정, 비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 경영진에 의해 작동하는 자율통제 수단인 내부통제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데 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영학 관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 내부통제제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예방통제 기능, 적발통제 기능, 교정통제 기능, 지시통제 기능 등 4가지 핵심수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 공기업과 R 재단, 그리고 민간기업인 Y사와 D사에서 도입한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 내부통제제도의 정착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어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보증이 모호하다. 둘째, 자율통제 원칙인 내부통제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거나, 통제활동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셋째, 최근 5년간의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경험 관련 추이를 보면 금품, 향응, 편의와 관련한 외부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내부청렴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문성 부족으로 핵심위험요소는 방치한 채 법 인카드 점검, 공직기강 점검, 행동강령 점검 등 비 핵심 통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효율성을 떨어지고 있다. 다섯째, 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시민감사관 등 여러 형태로 외부인을 활용하는데 대부분 비전문가를 인선하고 형식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용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표준내부통제(COSO) 모델을 예방통제 기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개혁위원회를 구성, 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이 거버넌스,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및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배치

* 본 논문은 발표자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한국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 前 두산그룹 내부감사 총괄임원(상무),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및 심화교육을 통해 내부 컨설팅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익명 제보의 적극적 수용환경 구축, 내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 핵심위험요인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패위험의 시스템적 통제를 내재화 하여야 한다.

핵심 주제어: 내부통제제도, COSO, 예방통제, 적발통제, 교정통제, 지시통제

뷰티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

김형규*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뷰티산업에 속한 코스닥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와 주식수익률(stock return)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sample period)은 2001년 2018년까지의 총 18년으로 하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표본기간 동안의 기업-연도별 자료의 형태를 지닌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모형 1과 모형 2이며, 모형 1을 구성하는 변수는 종속변수로서 주식수익률, 독립변수로서 경제적 부가가치관련 변수(EVAIC), 자본비용(WACC)이다. 모형 2는 모형 1에다 주식의 잉여현금흐름(FCFTA), 주가장부가치비율(PBR)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모형 1과 모형 2를 추정한 결과, 두 모형 모두 경제적 부가가치 측정치(EVAIC)는 예상과 달리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가지며, 자본비용(WACC)의 계수의 부호는 일관되지 않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 2에서 PBR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진다.

둘째, 순이익을 시현한 표본기업의 기업-연도별 자료로 구성된 하위표본(순이익-표본)을 대상으로 모형 1과 모형 2를 추정한 결과, 모형 1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측정치(EVAIC)는 예상과 같이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모형 2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측정치(EVAIC)는 예상과 달리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적이지는 않고, PBR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진다.

셋째, 순손실-표본을 대상으로 모형 1과 모형 2를 추정한 결과, 두 모형 모두 경제적 부가가치 측정치(EVAIC)는 예상과 달리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가졌다.

본 연구의 결과, EVA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순이익이 음(-)인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순이익이 실현된 기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EVA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순이익 실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코스닥 기업 중 화장품 산업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할 경우 투자성과 지표인 EVA만이 아니라 이익의 실현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EVA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국

* 청운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hkkam@chungwoon.ac.kr)

내 화장품 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 및 투자자, 그리고 화장품 산업 정책 담당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주제어: 뷰티산업, EVA, 주식수익률(stock return), 자본비용(WACC), 기업가치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와 지역경제활성화

강철승*

국문 요약

청해진 완도는 ‘건강한 섬’을 지역브랜드로 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알려나가는 한반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201개의 섬으로 구성된 완도군이다. 완도는 ‘울고 갔다가 울고 나오는 섬’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섬으로 귀양을 떠나는 기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완도 땅을 밟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완도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 그리워 또다시 울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지인들에게 ‘장보고의 섬’, 그리고 방송인 샘 오취리(Sam Okyere)가 즐겨먹는다는 ‘김’으로 그리고 “전복”으로 유명한 완도가 ‘건강한 섬’으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완도군은 농수축산 6차 산업의 창조적 선도 군으로 나섰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육로를 통해 완도를 방문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완도를 육지와 이어주는 관문 완도대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바다풍경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길이 500m의 다리를 지나다보면, 아치형 구조물에 예쁜 폰트로 새겨진 문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건강의 섬, 완도’다. ‘건강의 섬’은 완도 고유의 슬로건이다.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건강한 이미지에 웬만큼 자신이 있지 않으면 선불리 내걸 수 있는 구호가 아니다. 실제 완도군은 이를 확고하게 굳히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완도의 브랜드가 ‘건강의 섬’으로 정해진 이유는 한 마디로 건강에 좋은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완도는 ‘공기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산소음이온 수치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무려 서울의 50배에 달하며, 이는 사철 울창한 상록수림 덕분이지만 완도의 대표적 특산물인 해조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내 해조류의 45%를 완도에서 생산하는데 해조류는 육지의 나무보다 음이온을 다섯 배 이상 많이 발생시킨다고 한다. 전국에 제일 청정 세 모래로 완만하게 천연적으로 형성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에 산소음이온이 전국 최고로 발생하여 휴양지로 최적적이다. 완도의 해조류가 생산되는 바다는 이른바 청정해역으로도 이름이 높는데 완도의 해저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해수 정화작용을 하는 맥반석이 많이 깔려있고, 여기서 자란 해조류는 최근 ‘웰빙 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이기도 하다. 완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장보고’다. 장보고의 해상왕국 ‘청해진’이 바로 완도에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해진 장보고의 유적지와 장보고 기념관 등이 설

*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cskang46@naver.com)

치돼 있다. 장보고를 테마로 1996년 시작된 장보고축제는 2013년 4월 11일 제1회 세계해조류박람회가 열리기 전까지 완도군을 대표하는 지역행사로 자리 잡은 바 있으며,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KBS 드라마 <해신>의 세트장은 완도군의 관광명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완도의 자연생태적인 완도지역의 농수축산업의 생산과 가공유통 및 음식문화, 관광자원을 ICT와 융합하는 농수축산 6차 산업의 최적지로 개발하고, 천년 전 신라시대 장보고의 해상왕국 ‘청해진’의 역사적인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관광지로 브랜드화로 완도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완도, 건강한 섬, 국제해조류박람회, 6차산업, 웰빌푸드, 김, 전복